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digos.weebly.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9월

선교편지 제 58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여년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발트해 연안의 인구 150만도 안되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Estonia)'가 신형 IT 강국으로 떠 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성품답게 전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작년부터 '에스토니아'에게 첫번째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무명 신생 기업이 개발한 인터넷 화상 전화 '스카이프 (Skype)'가 엄청난 금액으로 미국에 매각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지금은 유럽의 실리콘 벨리 라고 불리울 정도로 나라 전체가 IT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자를 깨우치기 전인 다섯 살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래의 희망 직업은 의사도, 변호사도, 연예인도 아닌 'IT 창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걸맞게, 에스토니아에서는 신규 사업자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인터넷으로 단지 '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처: www.economist.com, 7/11/2013, 'Not only Skype')

지난 6월 미국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이곳 선교지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디고스 지역에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한 행정적인 '교회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회 법인'을 통해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이 향후 교회 건축 및 제반 절차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속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현지 중국계 고문 변호사를 찾아 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의 장로님인 고문 변호사는,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한 저의 자세한 계획을 듣고 나서,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제가 직접 관련 관공서를 찾아 다니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각종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해 보면 장기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새로 건축될 교회의 모습을 그리며 벅찬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 처리가 아직 부분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관공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양식을 구매하는 것이 첫번째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교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8장이나 되는 서류 6부를 동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 합쳐서 100장이 넘는 서류를 손에 쥐고 보니, 시작하기도 전에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모든 내용을 '타자기'로 쳐서 작성을 하라는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타자기를 사용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이고, 또한 제 주위에서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 줄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어렵게 허름한 곳을 찾아서 문의 해 보니, 100장이 넘는 서류를 타자기로 작성해 주는데만 꽤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해서 도저히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작성해야 될 서류들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작성해야 할 위치를 프린터와 일일히 미세 조정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가까스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그런데 뒤늦게 담당자로부터 타자기가 아닌 펜으로 작성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허탈해 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100여장이 넘는 서류를 컴퓨터로 완벽하게 (?) 구비한 이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관련 관공서의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서류를 마치 선생님이 시험지의 답안을 검토하듯이 연필로 꼼꼼하게 표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틀릴 줄 알았다는 듯이 미흡한 부분에 'X' 또는 '?'로 표시하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3번이나 거친 후 마침내 큰 시험이라도 합격한 듯이 제출한 서류가 통과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번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세금'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서 또 다른 관공서를 찾아가 새로운 서류를 받아서 또 다른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수가 있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담당자의 실수가 계속 되어서 이곳에도 4번이나 방문하고서야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세금 담당자로부터 고통스러운 3시간의 현지 법인 세법 교육을 받고서야, 마침내 그렇게도 갈망하던 '디고스 예일 교회' (Digos Yale Church in the Philippines, Inc.) 법인 등록증과 TIN (Tax Identification No.)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장장 50여일만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통하여 교회 법인 등록증을 받고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5분만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에스토니아'의 선교사들은 아마 이 기쁨을 절대로 알지 못 할 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행 5:20)



저희가 위치한 디고스 지역은 중심 지역의 상권을 제외하면, 바나나, 망고, 벵등을 재배하는 농지와 아직 개간이 되지 않은 유휴지가 대부분입니다. 필리핀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 이전의 대부호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직계 가족들이 대를 이어 물려 주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소작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토지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끼리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큰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기도하면서 디고스 지역에 선교의 교두보가 될 현지 교회를 건축할 토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 자리에 들기까지 교회가 건축되는 설레임으로 기도와 함께 디고스 지역을 살살히 훑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매물로 나와있는 토지들은 농업 지역답게 주로 헥터 (1 Hectare = 10,000 m², 약 10만 ft²)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면적이 1 헥터라고 할지라도 선교 센터가 아닌 교회만의 부지로서는 너무 넓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1 헥터의 1/10인 1,000 m² (약 1만 ft²) 내외의 규모로, 대지 가격이 교회를 건축해야 될 전체 예산의 4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희가 학원 사역을 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와 스파마스트 대학교의 중간 지점에 저희 계획에 꼭 부합되는 900 m²의 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넓은 토지를 후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매각이 되었고, 남아 있는 토지 중의 일부분을 이번에 저희에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구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안타까움 속에, 각종 관련 관공서를 통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을 하는 중에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주 도로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토지까지 진입하는 약 30 m 정도의 '도로'가 아직 행정적으로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처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향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중장비 차량이 진입하려면 인접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을 하고 나서도,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몇몇 주변 토지 소유주들을 수소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구두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동의해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도 교회 건축을 위한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 지역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날따라 지나가는 저희에게 한 중년 부인이 자신은 당장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딸은 교회로 보내겠노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알려 줍니다. 또, 한 남성은 자신이 무척 곤고한 지경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건축이 되면 꼭 출석하겠다고 하며 저희를 붙잡고 오랜시간 동안 신세 타령을 합니다. 저희들도 교회를 찾고 있지만, 주민들도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도가 더욱 더 간절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인내함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7)



작년 예일 교회의 은혜스러운 단기 선교를 통하여 조용한 디고스 지역에 5,000여명에 이르는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진료와 더불어 풍성한 선교 물품등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누구보다도 단기 선교를 가까이에서 순종하면서 수고한 학생들과 마띠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장학금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띠 교회의 반쪽 교회 건물이 온전한 형태의 교회로 변화되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축복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무엇보다도 단기 선교를 통하여 천금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 10:35)

요즈음 매주 토요일마다 마띠 고등학교와 스파마스트 대학, 그리고 마띠 교회에는 특별한 연습과 준비로 다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10월 8일과 9일에, 마띠 지역 주민과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마띠 교도소에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 예일 단기 선교 방문과는 비교가 안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피어오른 복음의 불꽃을 꺼뜨릴 수가 없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집회를 위한 마띠 고등학교 찬양팀의 연습

이 선교 집회를 위해서 25명의 스파마스트 대학 장학생들은 물론이고, 45여명의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마띠 교회의 찬양팀과 교우들이 이 사역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는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은 작년에 선배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며,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선교 경험을 한 스파마스트 대학생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찬양과 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연습하는 것만 보아도 벌써 은혜가 됩니다. 선교 집회를 계획하면서 마띠 교회 찬양팀에게는 말씀을 전하기 전 부를 5곡의 찬양을 준비토록 했는데, 찬양팀은 복음 전파 이후 선물을 나누어 줄때도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며 모두 10곡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교 집회를 준비 할 때와는 또 다른 담대함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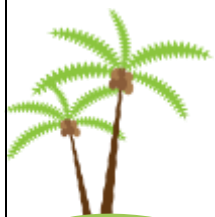
마띠 고등학교와 익핏 고등학교의 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마띠 교도소의 250여명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띠 지역의 공터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지도자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10월초부터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고, 마을 어귀에는 선교 집회를 소개하는 배너도 부착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 주민, 재소자들을 위하여 현지어로 제작된 1,500여개의 전도 소책자를 나누어 주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예일 교회에서 보내 주신 옷, 신발, 로션, 생필품등의 각종 선교 물품들을 이 집회를 통하여 학생과 주민들에게 모두 전할 예정이며, 함께 보내 주신 약 1,200여권의 도서도 익핏 고등학교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재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먹고 싶어하는 '라면'과 함께 옷, 치약, 칫솔, 여성용품도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방문시 MOM (Messengers of Mercy)로부터 후원을 받은 40,000여정의 종합 비타민을 1,000여개의 소포장으로 나누어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비타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10월 8일과 9일, 마띠 지역의 4곳에서 개최되는 4번의 선교 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띠 지역의 학생들, 주민들, 어린이들,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해 주시며,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70여명의 학생들과 마띠 교회 찬양팀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담대함을 넘어서 '복음의 큰 증거'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전 1: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